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팔자를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 19면에서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판이다 사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 양으로 그렇게 애를 써야 하죠? 몸으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마음이 죽는다면 몸도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해 줄 수 있고, 남들을 이익하게 해 줄 수 있고, 일체 만법에 걸림이 없이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이가 알면은 얼마나 알아?' 하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저 스님은 비구니인데,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차원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풀 한 포기도 불교가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으리만큼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의 그 모든 생명들이, 바람과 물과 흙과 불과 산천초목의 나무 한 잎사귀도 불교 아닌 게 없거늘 어찌 사람이 돼서 비구닌데 모자라고 비구닌데 잘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하다못해 돌 하나 굴러가는 걸 봐도 또는 발부리가 차여서 발이 짜개져도 이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로 증득할 것입니다.

돌도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지금 이 법상도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상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 놨을까요? 그러니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하나가 이심전심으로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에 따라 어김없이 끄달리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우습지도 않고 딱딱하기만 하겠죠. 그러나 딱딱한 것은 바로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웃기기나 하고 과거 얘기나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하실는지, 여러분은 웃고 즐기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속의 여러분은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눈뜨고 눈 감고, 일어나고 앉고 서고, 생활하는 일체 만법을 바로 여러분이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내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주인공이 무엇인고?' 하고, 그, '하는 놈이 무엇인고?' 하기 이전에 그놈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 밝은 세상에 '그놈이 뭣고?', '모두를 이렇게 들이고 내고 있는 놈이 무엇일꼬?' 하기 이전에 '바로 그놈이 하는 것이구나.' 하고 뛰어넘어야 되겠죠. 3학년까지 공부를 잘하다가 너무 잘하니깐 4학년을 뛰어넘어서 공부를 해도 능히 하더랍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생전에 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감을 알고, 들은 사이 없이 듣는 걸 알고, 말하는 사이 없이 말하는 걸 알고, 책을 보되 보지 않는 걸 알고, 책이 나를 보지 않는 거를 알고 모든 거, 저 구름이 스스로서 오고 가는 걸 알고, 인간이 스스로서 생하고 멸하는 걸 알고, 이 모든 망상이 전부 망상이 아니라 네놈이 한다 하는 거를 모두 증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다음에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올 때는 여지없이 중이 돼서, 중이라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중은 계·정·혜이러는데 계도 정에 들고 혜도 정에 들어서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중이 돼서 이 소임을 맡든 저 소임을 맡든 수천수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대장부로서 이 세상을 주름잡을 때 비로소 우리 국가의 역사는 거대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머리만 깎고 옷만 입었다고 해서 중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산천초목도 쳐다보고 이 가슴속에 흘리는 눈물이 저 한 방울의 피와 같이 바다를 모두 메울 수 있는 한 방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과 또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일체 조사의 마음이, 천백억화신의 마음이 다 한마음으로서 접근이 된다면 이끌어 가지 못할 게 없죠. 바로 여러분 마음 하나만이라도 접근이 돼야만이 그 모두가 접근이 되는 것이고 아주 여여하게 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알아주실 수도 있고 일체제불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 역대조사들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는가 하면 천백억화신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 이 산천초목도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 이 모든 마음들을, 바람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요.

본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본래 물도 나쁜 것도 없이 사람의 마음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독이 들고 살아가면서 선인의 일을 하고 그러죠. 팔자 운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팔자를 만들고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얘야!"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스님더러 그랬습니다. "저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보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 안 보이긴 하나 돌아가는 건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요. 그 돌아가는 데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돌아간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모두.

그런데 그 돌아가는 불바퀴, 여러분의 불바퀴에 어떠한 요건의 문제도,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맡겨 놓으면 그냥 녹아 버립니다. 그냥 장난삼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과학자들은 아주 여자도 불문에 붙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산다 합디다, 그 연구하느라고.

그렇듯이, 보세요! 모든 것은 보이지는 않으나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진실하게 '너만이 이것을 녹일 수가 있다.' 하고 진실히 믿는다면,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반면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을 하고 그런다면 두려울 게 없죠. 또 남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정의로써 아주 진실하게 말을 하되 남이 언짢다 하면 거짓으로 해서라도 이 사람이 이익하다면 거짓을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통성 있는 지혜라고 보는 것이죠. 모든 게, 사람 사는 것이 가슴이 넓어야 하고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못생겼든 잘생겼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닿기만 하면, 그 프로펠러에 닿기만 하면, 그게 불바퀴라고 한다면, 닿기만 하면 그냥그냥 갈아져 버리고 부숴져 버리고 녹아 버리고 타 버리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참 여러분이 홀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분에 한해서는 또 '내가 이만하면 깨달았지.'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깨달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망상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깨달았다고, 나를 발견했다면 겨우 땅속에서 씨가 나와서, 겨우 싹이 한들한들하면서 나오는 격입니다. 그것이 다 길러져서 이 세상에 모두 이심전심으로 둘이 아니게 조화를 이루고 돌아갈 때 그때에 바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도 깨달았다고 말은 못 합니다. 열매가 맺어서 온 누리를 두루 하면서 씨가 앉아서 무르익었을 때, 그 씨를 심어서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먹일 수가 있는 그런 실과가 돼야 하고, 남들이 그 익은 실과를 갖다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영원히 그 실과 하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점, 바로 이름해서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과거 삼, 현재 삼· 미래 삼을 통달해서 인간이 제대로 돼야만이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여기 다니신 지 여러 해가 되는 분들도 많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 질문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직껏 공부한 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만이 잘해 나가는 건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신도1(여) 스님들도 계시고 많은 보살님도 계신데 나이 어린 제가 나와서 떨리기가 한이 없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니다.

큰스님 그냥?

신도1(여) 예, 그냥. 맞았습니까?

큰스님 맞긴 뭘 맞어? (대중 웃음)

신도1(여) 맞는 것도 놓는 것도 그냥입니다. 그냥입니다.

큰스님 그냥…. 그래, 그냥 그냥이야. 그냥 해도 안 되고 그냥 그냥이야. 그대로 해봐. 그대로 잘해 나가.

신도1(여) 감사합니다, 스님. 하해와 같습니다.

큰스님 또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데 어떻게 해야 잘해 나가는 겁니까? 다 사람은 차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테니깐요.

질문자1(남)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십시오. 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자1(남) 예, 바로 그건데, 어떤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요. 조금 전에 보살님이 그냥 한다고 그랬는데….

큰스님 그거는 댁에서 모르는 일입니다.

질문자1(남) 예,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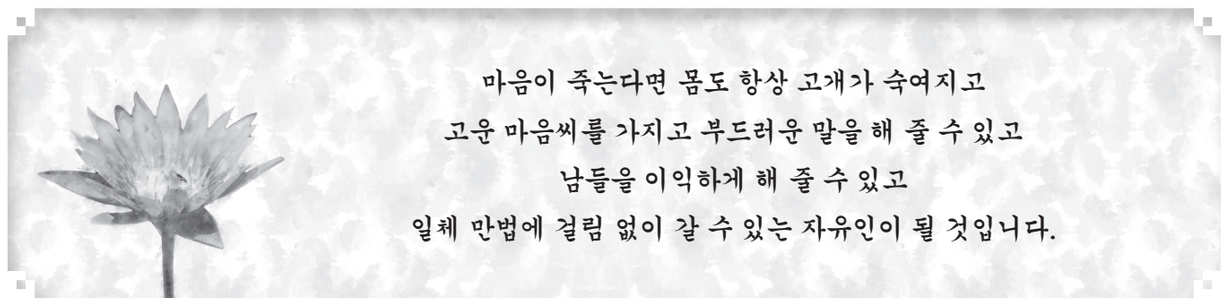
큰스님 그거는 물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댁한테 지금 하고 싶은 공부를, 어떻게 마음의 공부를 해야 잘하는 건지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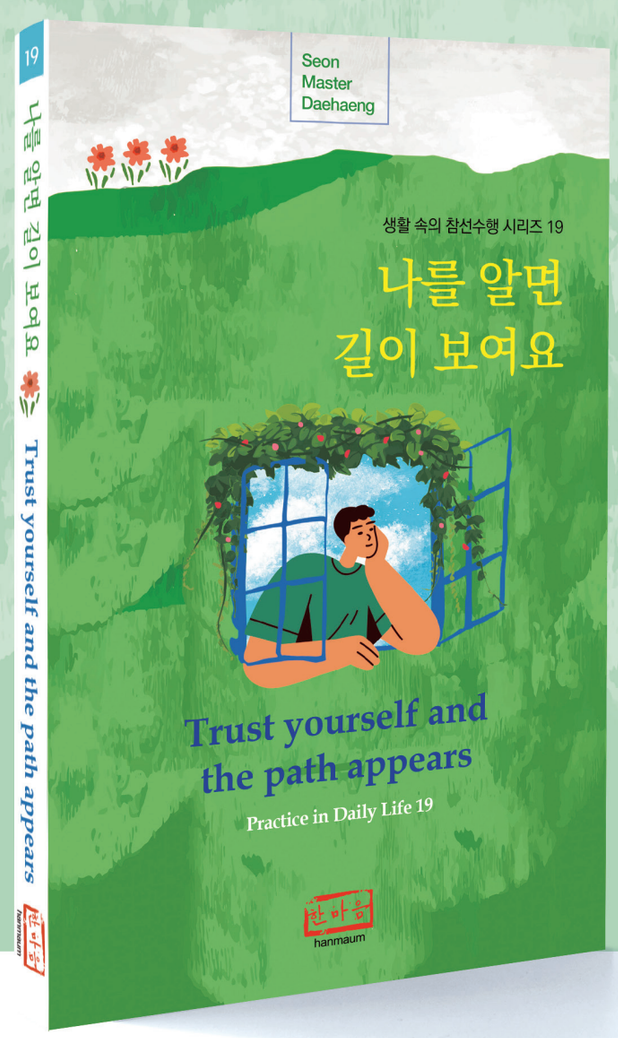
질문자1(남) 그런데 마음의 공부, 저는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제 가슴에 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큰스님 그러면 열심히 모든 것을 내 앞에 닥치는 대로, 아까 얘기했죠. 불바퀴에 맡겨 놓으면 부서지고 타고 시신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깐 과거의 업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인과성이라든가 그런 게 무조건 바로 타 버린다고요. 녹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6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